

저스템, 2차전지 장비 LOI 접수... 신사업 동력 확보

- ▶ 23일 일본 Top Tier 2차전지 장비 N社 구매의향서 접수
- ▶ 2차전지 열처리 장비시장 선점 기회 마련

저스템(대표이사 임영진)이 2020년 이후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던 2차전지 장비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저스템은 지난 23일 일본의 Top Tier 2차전지 장비 기업 N사로부터 열처리 장비 공급에 관한 구매의향서를 접수하고 본 계약 체결 이후 확정된 제품 발주에 따라 하반기 중 장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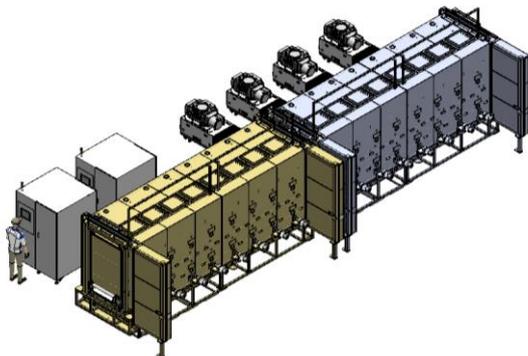
이번에 공급하는 장비는 2차전지 활성화 공정의 고온 에이징(Aging) 장비다. 이 장비는 케이스에 조립된 셀에 특정한 압력 및 온도 등 환경에 맞춰 제습 건조 기능을 수행하며 배터리 수명과 성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게 쓰인다.

저스템 김용진 CTO는 "N사와의 파트너십과 2차전지 열처리 장비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평하고 "고온 Aging 장비를 시작으로 회사가 보유한 원천 기술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신사업을 상시 검토해 2차전지 열처리 장비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템은 또한 전극 공정에 '차세대 SiO-SiC 파우더 열처리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회사측은 이 장비가 상용화되면 2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양.음극재 소재 시장에서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저스템은 2차전지 열처리 장비와 관련한 핵심 기술로 이미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일본 N사와의 협력 이후 추가 수주를 추진함으로써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자료: 저스템 2차전지 장비]



- 2차전지 케이스에 조립된 셀을 특정한 조건으로 제습 건조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장비
- Pre Heater & Vacuum Dryer 로 구성